궁금했던 은퇴 출가, 이렇게 준비하세요

Q&A로 살펴보는 조계종 은퇴 출가제도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 출가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은퇴 출자제도는 일종의 특수 출가제도로서 마지막을 출가 사문으로 살아가겠다는 은퇴자들이 산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 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출가인 만큼 제재 조치도 있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친권 포기를 하지 않고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견덕, 계덕까지만 법계가 품수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궁금했을 은퇴 출가제도 사안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출가 자격조건 Q&A

Q. 15년 이상 경력 기산 및 범위는?

은퇴출가 희망자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 교구본사에서 심사한다. 동일직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회경력을 활용해 불교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의 합산도 가능하다. 분야 범위는 관련 법령으로 명시한 것 이외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력을 가졌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15년 활동경력 이외에 신심과 원력이 투철해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교구본사에서 판단해 심사한다.

출가 자격 요건

YES

각 분야 15년 이상 활동 경력
51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국민건강보험 가입·공적 연금 수혜자

NO

감염성 질환·중증 질환자
파렴치범(살인·강도·성폭력 등)

Q. 개인연금·국민연금 수혜 예정자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를 모두 완료된 사람이다. 국민연금 수혜 예정자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자이며,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는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절차 관련 Q&A

Q. 은퇴출가자 등록 어떻게?

은퇴 출가자는 은퇴출가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교구본사로 접수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각 교구본사에서 이뤄지게 되며, 자격조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사본 1부를 교육원으로 보내면 된다. 이후 교육원은 등록일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은퇴출가자 행자등록 절차

은퇴출가 희망자	행자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 교구본사에 신청
↓	
교구본사	서류 심사 및 출가 가부 결정
↓	
교구본사	등록 행자 서류 사본 1부 교육원 제출
↓	
교육원	제출된 서류 1부 관리 및 교육 관리

Q. 은퇴출가자의 수행 사찰은?

'수행 사찰'은 은퇴자가 출가하여 거주하며 수행하는 사찰로 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은퇴출가한 자 교육을 위해 위탁한 사찰을 말한다. 은퇴출가한 행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위탁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Q. 은퇴출가자 재출가할 수 있나?

은퇴출가한 행자가 자진 퇴방한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본사에서 법 제 7조(퇴사조치)에 의해 강제퇴방당한 경우는 재출가가 불가하다. 또한 재출가하게 되면 이전 사찰에서 생활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교육 및 수계에 대한 Q&A

Q. 종단 행자교육은 언제?

은퇴출가한 행자는 종단이 실시하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원에서 등록이 된 은퇴출가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된다. 올해에는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

각 본사에 위임한 사항으로 교구본사 및 수행사찰 주지의 책임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일반 행자와 함께 교육할 수 있다.

해당 본사와 사찰은 교육원에서 보내는 월간 교육 일정 프로그램을 참조해 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시행령 제5조)

Q. 은사는 어떻게 정하나?

은사 스님을 정하는 때는 은퇴출가를 한 행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자 할 때 정하게 된다.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의 양식)를 작성할 때 기입하면 된다.

이후 은사 스님에 대해 총무부와 호법부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은사의 기준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이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 복구 기금 3000만원

군종특별교구, 총무원장 신년하례서 동행에 기탁

교구장·대표군승 참석
JSA법당 방문 요청도



군종특별교구는 1월 15일 아름다운동행에 푸에르토리코 복구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별들이 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018 총무원장 스님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부교구장 남전 스님, 육군 대표 이정우 법사, 해군 대표 한관희 법사, 공군 대표 김용호 법사,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피해복구 기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했다.

예방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장성들에게 "불자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치하하며 "호국불교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쌓고 위법망구 정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포로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화랑오계 정신으로 평화를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 군종특별교구는 설정 스님에게 오는 3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전사자 위패가 봉안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법당 방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예비역불자연합회는 남산 한옥마을 앞 호국 충정사의 임대계약 문제 해결을 요청, 설정 스님은 종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관리 형평성, 국회가 신경을…"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더민주당 의원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화재 관리 형평성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 오른쪽으로 홍영표·오영훈·전재수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방서 국가·민간문화재 관리 형평성에 국회가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영훈·전재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홍영표·전재수 의원은 동국대 출신으로, 오영훈 의원은 당 불자회장으로서 조계종을 예방했다.

설정 스님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 문화재 관련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스님은 "면단위로 관리되는 국가문화재와 점단위로 관리되는 민간문화재 예산 지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만약 관리를 국가 대신 불교계가 맡지 않았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점단위 관리 문화재에 대한 배려를 정부차원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배석한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국가소유 문화재에 1건당 6억9000만원, 민간소유 문화재에 1건당 6000만원이 지원된다.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불교의 자주적인 관리는 문화재가 역사 안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돌봄사업'에서도 불교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최근 문화재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돌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규정을 마련했다"며 "스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돌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과 지역 문화재돌봄센터 운영, 문화재돌봄 종사자 자격 및 전문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성전〉 개정증보판 발간

천태연구원, 2년여 추진 '성과'



천태종의 이념과 실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태종 성전〉의 개정 증보판이 발간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천태종이 1971년 〈천태종 성전〉을 발간한 이래, 46년 만에 개정 증보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증보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5개월에 걸친 불사 끝에 나오게 됐다.

개정 증보된 〈천태종 성전〉은 그간 불충분했던 장·절의 체계성과 소략한 내용을 보완하고 달라진 의식 절차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의 한문 문장을 한글화한 것도 특징이다.

연구원 측은 "책의 편제를 재정비하고, 그간 종단 발전상을 반영해 새롭게 〈천태종 성전〉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종도들의 지혜와 자비 원력이 증장되고 21세기를 이끌 천태종의 역량이 집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謹賀新年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